



‘소보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소비자보호원>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 명의 수천만원 대출 승인 경찰 “문자메시지 첨부된 앱 절대로 설치 말아야”

새해 벽두부터 제주지역에서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옛 명칭)을 사칭한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은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A씨(50·여·제주)는 지난 2일 알수 없는 발신번호가 찍힌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모 전자매장에서 49만7000원이 결제 승인됐는데,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

으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해달라는 것이었다. 가전 제품을 산 적이 없는 A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신을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며 ‘스미싱 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A씨가 앱을 깔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김태호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며 퀵서포트(QuickSupport)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두 남성 모두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이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으로 범인은 이 앱을 이용해 A씨 명의로 국내 유명 생명보험사에서 8건, 총 34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 받은 돈을 이체해 가로챘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압수수색 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이번 사건을 전문수사팀이 있는 제주지

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길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원격 조정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범행이 들뜰날 수 있기 때문에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화면을 볼 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 주소를 직접 보내주는데 문자로 받은 앱들은 절대로 깔면 안된다”면서 “휴대전화 보안 기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들은 깔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우리동네 시민경찰’ 김승범 씨 등 3명이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감한 시민 4명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빵소니범 검거 등 공로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한 김승범(31)씨 등 시민 4명을 용감한 시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150m 가량 추격해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김씨 등을 초청해 표창장과 ‘우리동네 시

민경찰’ 기념품 및 부상품을 수여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검거보상금 3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의 불의에 맞선 진정한 의인의 본보기”라며 “이런 시민들의 정의롭고 용기있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떠받치는 밑거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우리동네 시민경찰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해 범인 검거와 인명구조 등 치안활동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제도다.

이상민기자

물질 70대 해녀 숨져

해상에서 물질에 나섰던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1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이어오던 오모(75)씨가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태윤기자



천바람 뚫고 섬지코지로... 18일 쌀쌀한 바다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섬지코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한 외투를 풍공 여민채 산책로를 걸으며 겨울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있다.

강정천 원앙 집단 폐사 원인은 통신줄?

부검서 총상 아닌 ‘목뼈 골절’이 직접 사인 소견 경찰 “몸속 총알은 수개월 전부터 몸에 지녔던 것”

최근 서귀포시 강정천 일대에서 총격에 의해 집단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사인이 총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뢰해 현장에서 수거한 원앙 6마리를 부검한 결과 6마리 모두 경추 절단과 가슴근육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는 지난 11일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원앙 사체 6구를 수거하고 날개

가 부러진 1마리를 구조했다. 당시 협회는 현장에 심하게 훼손된 다른 사체들을 포함해 모두 13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 발견 당시 사체 1구 몸 안에 서 산탄 총알 1개가 발견되고 다른 사체에서도 총알이 관통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원앙들이 산탄총(업총)에 죽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가슴근육 파열과 목 등이 부러져 죽은 것으로 나타나 총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체에서 산탄총알이 발

견된 원앙의 경우, 수개월전에 총에 맞아 몸 속에 총알이 박혀있는 채로 생존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정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에게 “원앙이 통신줄에 부딪혀 죽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류보호협회측은 “원앙이 전 기줄에 걸려 죽는 경우는 드물지만 새로운 환경의 장애물이 생겼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앙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등 토대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유전자감식 4·3희생자 12명 신원 확인

2018년 2구 유가족 추가채혈 통해 형제 관계 확인 오는 22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서 신원확인보고회

제주4·3평화재단은 2019년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통해 4·3 항쟁 희생자 12명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405구의 유해 중 유전자 감식을 통해 121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 이로써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2019년 감식을 위해 유가족 291명이 추가 채혈을 했고, 2018년 발굴된 5구의 유해와 지금까지 신원확인 안된 유해를 대상으로 기존 STR, SNP 방식으로 감식했다. 또 이에도 확인치 못한 유해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STR-NGS)’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확인 결과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 5명, 1950년 예비검속 희생자 7명 등 12명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 국제공항 남북할주로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발굴된 유해이다.

특히 2018년 형제임을 확인했지만

관계를 특정하지 못했던 2구의 유해도 유가족 추가채혈을 통해 형제 관계가 확인됐다.

2019년 새롭게 확인된 희생자 12명과 2018년 확인된 형제 2명 등 14명에 대한 신원확인보고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는 2019년 새로운 신원 확인 희생자(괄호 안은 출생연도) 명단.

- ▷현행주(1925년생) 서귀 서흥(예비검속) ▷정옥주(1891년) 남원 신례(〃) ▷고원행(1917년) 대정 무릉(〃) ▷양덕홍(1921년) 남원 의귀(군법회의) ▷오관형(1920년) 성산 수산(〃) ▷김재철(1930년) 남원 의귀(〃) ▷고주만(1929) 서귀 서흥(예비검속) ▷김영하(1932년) 서귀 토평(〃) ▷임공화(1920년) 안덕 동광(〃) ▷양덕철(1918년) 남원 신례(〃) ▷현봉규(1920년) 서귀 상호(〃) ▷현준공(1924년) 서귀 상호(군법회의, 형제).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신사복, 와이셔츠, 남방, 단체복 일절

H.P. 010-6677-1140

월성라사

1급 기능사의 집

고급양복전문

월성라사

오랜 전통으로 품위있는 정장을 맞춰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품질을 제공해드립니다.

신사복, 와이셔츠, 남방, 단체복 일절

제주시 관덕로 10(삼도2동) Tel. 723-1140 H.P. 010-6677-1140

◆일일여행업 252호◆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

가자 일영투어

T.727-2277

말레시아 관광 4박 5일 제주특별자치도

쿠알라룸푸르/말라카/기린 5일 **화목출발 799,000원~**

두리안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5일 **화목출발 999,000원~**

말레시아 골프 별도문의

마카오/계림/양식 5일

692,700원~

심천/계림

398,200원~

방콕 5일 **특가**

599,000원~

방콕/차앙마이

899,000원~

다낭 3박 5일 **3월 25일 4월 30일**

99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나트랑 4월 29일 **제주직항 999,000원~**

대만/야류/지우펀/스핀/단수이 4일

499,000원~

홍콩/마카오 4일

697,600원~

제주특별자치도

북경 4일

390,600원~

방콕 3박 5일 골프

1,190,000원~

가오슝 골프 1,196,800원~

가오슝/남부일주

498,000원~

중국 대련 4일

목요일 출발 393,400원~

하롱베이 4월 30일

999,000원~

가자 일영투어 IATA 공/통/사/왕 양평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원여행자보험, 전경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평세, 직항 그 외 해외상품 : 사이판, 싱가포르, 무이산하루, 장가계, 허니루, 호주, 시드니 등